

HYUNDAI E&C TODAY

Vol 401
2021/6/25 FRI

발행인 윤영준
편집인 한성호
발행처 현대건설 홍보실
주소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신고번호 종로 다0049

안전·품질 선도하는 사람들

장애편 기간 내 '안전'이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최고 '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건설의 사의 영달한 과업. 현대건설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우들을 <사보신문>에서 만났다.



2021년 신입사원 'CEO 간담회'... MZ세대와 소통의 장을 열다



“
윤영준 사장, 신입사원들과
격 없는 소통의 시간 가져...
성공의 자양분은 “좋은 책과 좋은 사람”
”



1 권위 있는 CEO보다는 친근한 모습으로 간담회에 나선 윤영준 사장. 2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CEO 간담회'는 상하 간의 벽을 허문 즐거운 만남이었다. 3 신입사원과 윤영준 사장의 기념 촬영.

CEO와 현대건설의 미래를 책임질 새내기와의 행복한 만남

“이제 새내기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조언은 지금이라도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구해서 읽고, 값진 조언과 모범이 되는 선배·동료를 찾으라는 겁니다. 좋은 책과 사람은 성공의 자양분이자 갑옷과 투구가 될 것이 분명해요.”

우리 회사가 6월 21일 계동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준 사장과 2021년 신입사원이 참여한 가운데 'CEO 간담회'를 가졌다. 2021년 신입사원 입문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상하 간의 벽을 허물고 소속감과 유대감을 다질 수 있는 자리였다. 신입사원들은 '새내기라면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한다' 'CEO의 위기 극복법' '일 잘하는 직원들의 공통점' 등 평소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윤영준 사장은 “입사 전 우연히 정주영 선대회장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뗀 후 “당시 선대회장님께서 ‘현대건설은 그냥 기업이 아니다. 돈이 목적이 아닌 부국강병(富國強兵)의 일을 하는 회사가 바로 현대건설’이라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국토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부터 대한민국 3권을 상징하는 국회의사당·청와대·대법원청사 등 국가의 역사와 뿌리에 함께한 위대한 회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에 입사한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과 조직 문화를 선보일 것”이라며 새내기 직원의 시작을 응원했다.

또한 윤 사장은 위기가 다가오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하며 “외부에서 패배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실력이 늘 수 없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새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위 있는 CEO보다는 친근한 '인생 선배'의 입장에서 들려준 진심 어린 조언은 신입사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신입사원들은 세계의 고전으로 손꼽히는 『사기열전』과 입사 기념 '골드명함'을 수여받으며 현대건설인으로서 힘찬 첫 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신입사원들은 12주간의 인턴 실습 후 최종 평가를 거쳐 선발됐다. 현장 적응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새내기들은 6월 23일 까지 그룹·건설 입문교육을 완료하고, 현업에 배치될 계획이다.

UNLIMITED
HYUNDAI E&C

현대건설은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한 '현대정신'으로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은 구체적 실천과 강인한 추진력으로 '글로벌 건설 리더'를 향해 나아가는 현대건설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COLUMN
‘탄소 없는’
스마트시티를 말하다

HEALTH
뜨거운 여름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법

LIFE
보다 짜릿하게
여름을 즐기는 시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 & 익스테리어팀

자연과 예술이 완성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현장&사람 대한민국 프리미엄 주거의 기준, 디에이치(THE H)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곧 배일을 뱃다.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트랜디한 주거 문화를 선도할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역대급 규모와 우수한 주거 환경으로 일찍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자연을 품은 단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단지 곳곳에 프리미엄을 더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이곳에서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의 현주소를 만나볼 수 있다. 글=이진우

네 번째 디에이치 라이프의 시작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

뒤로는 대모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양재천이 흐르는 곳. 단지 내 우거진 나무숲과 너른 잔디정원, 산책로 따라 조성된 계곡이 여유를 선사하는 단지. 자연의 아름다움과 특별하고 완성된 삶을 위한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이곳,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37개월간의 숨 가쁜 레이스 끝에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개포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지하 4층~최고층 기준 지상 35층, 15개 동, 총 1996세대 규모의 단지다. 기존의 디에이치 현장과는 다르게 조합이나 시행사 없이 현대건설-GS-현대엔지니어링이 공동원연금공단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직접 시공 및 시공했다. 명문 학교 인접해 교육 환경이 우수한 데다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지하철 초역세권에 SRT 수서역도 가까운 교통 인프라까지 지리적 메리트가 뛰어나 분양 당시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아너힐즈, 포레스트, 라클라스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디에이치인 이곳에는 디에이치만의 프리미엄 가치와 자이 개포만의 특별함이 공존한다. 소나무 특수목, 제수 팽나무, 윤노리나무 등 최고급 수목이 연출하는 수려한 경관에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예술작품이 그중 하나. 에이브 로지스, 박재성 등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과 조형물들은 절제된 색감의 건물 사이에서 단지를 활기를 더한다. 또한 아이들이 뛰놀며 꿈을 키울 놀이터에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우리 아빠(My Dad)’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이들에게 그림책 속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듯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앤서니 브라운과 협업한 세계 최초의 놀이터다.

이외에도 단지 곳곳에 배치된 세계 유명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국내 공동주택 최초로 설치한 3D 프린팅 셀터형 벤치는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헤리티지 가든에서는 강남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복층형 피트니스, 실내 골프연습장, 강남 유일의 실내 조깅트랙 등이 마련된 디에이치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에서 고품격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현장은 지난 12일부터 3일간 입주자 사전점검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안전한 마무리를 위해 마지못해 스프트를 올리고 있다. 새로운 삶의 공간을 둘러본 입주 예정자들은 “역시 디에이치”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공기 중 발생한 각종 민원과 설계 확정 지연 등으로 평탄치 않은 순간도 많았던 지난 시간, 밤낮없이 공사에 매진한 덕에 ‘완벽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고급 특수목 식재 반입부터 대형 시설물 공사, 디에이치 최초로 미디어아트를 도입한 문주의 LED 광원 설치 등 쉽지 않은 과정에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한 끝에 해결해낼 수 있었다”며 “특별 사전 협의와 계획이 매우 중요했던 만큼 유기적인 조율 과정을 거쳤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사 유관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경영층의 전폭적인 지원의 힘이 컸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엄격하고 세심한 기준으로 삶에 품격을 더하고 주거 가치의 최우선을 높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이곳에서 디에이치 프리미엄 라이프가 펼쳐지는 그날, 강남은 새로운 주거 문화 트렌드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서게 될 것이다.

주거 공간의 트렌드를 이끄는 ‘익스테리어팀’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초 남짓.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시각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55%로 가장 크다. ‘이미지’는 때때로 뛰어난 실력과 내공을 표현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의 인상을 좌우하는 핵심이 익스테리어(Exterior)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이미지가 곧 경쟁력인 시대, 입구 문주부터 단지 내 조경, 커뮤니티 시설까지 차별화된 감각과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현대건설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중심에 익스테리어팀이 있다. 익스테리어팀은 우리 회사 공동주택의 외관, 커뮤니티 시설과 공용부, 조경 상품 및 디자인을 총괄하는 곳으로 기획·설계·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건물의 형태와 색상, 주출입 공간, 부대시설 등의 디자인은 ▶익스테리어파트, 실내놀이터, 필프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엘리베이터 홀 등 공용부 디자인은 ▶커뮤니티 파트, 외부 조경의 상품 및 디자인 개발과 수주 시 입찰 견적, 예산 작성, 현장 품질관리 및 CS 기술지원 등은 ▶조경 파트가 맡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 팀에 소속된 만큼 각 분야의 강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디자인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익스테리어팀은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의 확실한 브랜드 포지셔닝 상품을 통해 우리 회사 주택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있다. 각기 다른 건물의 형태나 배치를 고려해 현장 여건에 최적화된, 동시에 차별화된 콘셉트를 구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힐스테이트는 힐스테이트만의 통합 디자인 매뉴얼을 바탕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각 현장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반면에

프로젝트별로 완결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디에이치는 오토쿠르(고급 맞춤복) 컬렉션과 같은, 보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통해 최고 수준의 주거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특히 주목할 점은 예술가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공간에 예술을 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의 공간 디자이너 신타 탄트라와 협업해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예술 놀이터와 수경 시설 조형물을, 예술가들의 예술가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카를 마르티우스와 함께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놀이 공간과 조형 파빌리온을 조성한 바 있다. 주거 공간에 자연스럽게 작품을 녹임으로써 건축과 예술의 경계를 허문, 그야말로 단지 자체가 하나의 미술관 같은 최상의 주거 문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익스테리어팀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는 지난 한 해에만 국내외 15개가 넘는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디자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디에이치 상품 ‘클린존’이 iF DESIGN AWARD 2021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10여 년 만에 세계 3대 디자인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더불어 지난해에는 익스테리어 상품으로는 독보적으로 힐스테이트 문주가 대한민국 우수디자인상품(GD)에 선정되면서 6년 연속 영예의 기쁨을 안았다. 특목 뛰는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계획한 디자인이 현장에 아름답게 구현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익스테리어팀, 공동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는 익스테리어 영역을 담당하는 이들은,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예술이 된 자연, 디에이치 자이 개포를 말하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서의 산책, 거대한 아파트 단지리보다 푸른 자연을 거니는 듯한 느낌이다. 웅장하고 미려한 나무와 초록에 생기를 더하는 꽃무리, 걷다가 마주치는 예술작품, 오가며 앉힐 수 있는 벤치까지.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듯 자연스럽게 눈길을 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조경은 “예술을 기반으로 한 고급 주거 공간의 본질”에 접근,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강조하며 도시적인 건축물과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담았다. 조경을 담당할 분사 익스테리어팀의 최연길 책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의 박성욱 책임과 함께 둘러보는 ‘The Sig-Nature Gallery’.

단지 내 여러 동의 아파트가 높아서 있지만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상 한편에 휴식이 자리한 느낌이었어요. **최연길 책임(이아 최 책임)** 아파트나 커뮤니티 시설 등 건물과 대형목 숲, 정원, 석가산과 계곡 등을 짜임새 있게 배치했어요. 길게 뻗은 가로공간이나 물길로 활용하고, 중앙광장처럼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은 과감히 비웠어요. 보행로 주변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건물 가까이에 나무를 배치해 개방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높은 건물이 주는 위압감을 상쇄시켰습니다. **박성욱 책임(이아 박 책임)** 설계가 정해진 건축물과 달리 조경은 시공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조율하는 부분이 많아요. 수목이나 다른 자재의 규격이 전부 다르기도 하고, 스케치했던 것보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많은 고민과 검토 후에 적용합니다. 실제로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단지의 특성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원래 계획과 달리 많은 나무를 배제한 라인이 있었는데요. 덕분에 산에 아파트를 지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원합니다.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 때문인지 야외 갤러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최 책임** 디에이치는 조경이나 익스테리어 상품에 세계적인 예술가와 협업을 많이 합니다.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그 특성이 더 확연히 드러난 현장이에요. 대모산입구역 앞 문주를 보셨나요? 박재성 교수의 미디어 아트 작품 (Tangent 22)인데, 석재 질감 위로 은은하게 움직이는 빛이 오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그 아래 에이브 로지스의 (Forest of Flowers)로부터 단지를 가로지르는 길이 시작돼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선 데이터를 패턴화한 박재성 교수의 (Human Nature)가 눈에 들어오고요. 또한 세계 최초로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과 함께 놀이터를 구현했는데요. 그동안의 작품들이 어린 눈높이의 컬러레이아웃이었다면 이번엔 아이들도 좋아하는 동화를 그들의 공간에 실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알래스카로 멘디나, 론 아라드 등 세계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를 배치해 작품과 어우러져 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시각각 변화는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현대적 예술작품이 전시된 하나의 갤러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걷는 길, 이야기 나누는 공간,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등 일상에 자연스레 예술이 스며드니까요. **박 책임** 문주 쪽 아파트 동 옥상에는 헤리티지 가든과 스카이 가든이 있습니다. 헤리티지 가든은 조경 전문가 단국대 김현 교수와 함께 조성한 프리미엄 정원이에요. 보길동의 부용동 정원을 재해석한 작품인데, 유려한 곡선으로 옛 문묘의 물길을 표현했고 이 흐름에 따라 동선을 냈습니다. 무엇보다 테라스가 도시를 향해 열려 있어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헤리티지 가든에서 스카이 로비를 지나면 또 하나의 정원, 스카이 가든이 나오는데 여기는 유럽풍 아의 정원같은 느낌으로 좀 더 커뮤니티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단지의 아름다움에 대해 입주주민의 실질적인 생활도 세심하게 고려된 것 같아요. **박 책임** 중앙정원 쪽 테라스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했는데요. 외부 사람이 방문했을 때 굳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차 한잔 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약 2000여 세대 가까이 되는 규모도 넉넉하게 고려했고요. 테라스 앞은 물론이요 도시관 등 정적인 공간이 있어서 ‘살’을 느낄 수 있도록 상록수를 많이 배치했습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단지 중심부의 석가산이나 정원을 잘 볼 수 있도록 테라스 2층에 전망대를 조성했다는 거예요. 걸으며 보는 것과는 또 다른 조망이 가능하죠. **최 책임**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여러 공간은 나무의 스토리에 따라 각기 다른 경관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의 형태에 맞춰 조성한 산책로나 도심 속 계곡 등은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중앙정원 쪽 공간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모여 커뮤니티이션 하기에 최적화돼 있죠. 독특한 스카이 가든에서는 연회도 가능하고요.

입주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어가는 지금, 한마디 한마디요. **박 책임**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표현해 온 단지가 완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 감각이 ‘시대와 동떨어지지 않았구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웃음). 고되기도 했지만 재미있는 현장이었어요. 앞으로도 더 나은 공사를 위해 끝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최 책임** 디에이치는 프로젝트별로 완결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앞으로도 치열하게 고민해서 독보적인 디에이치 조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연길 책임 익스테리어팀

박성욱 책임 디에이치 자이 개포 현장



이국적인 풍경이 리조팅 파빌리온



박재성 교수의 미디어 게이트 (Tangent 22)와 에이브 로지스의 조형물 (Forest of Flowers)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My Dad)’ 놀이터



부용동 정원을 재해석한 헤리티지 가든



강남 일대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라운지



커뮤니티 로비, 박재성 교수의 미디어 아트 작품 (서울의 꿈)



커뮤니티 내 AV룸



‘꿈이 느껴지는 잔디정원과 테라스’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

시골의 역습, 밀레니얼이 도시를 떠나는 이유

피플인사이드 한국의 '골목여지도'를 만든 학자이자 국내 유일의 골목길 경제학자. 밀레니얼의 '핫'하고 '힙'한 공간을 구석구석 누빈 베이비부머 세대,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멘토 모종린 교수를 만났다.

글=김민희 <툰클래스> 기자 / 사진=서경리 <툰클래스> 기자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철저한 현장 학자다. 전국 곳곳을 직접 다니며 골목길 상권 지도를 완성했다. 그렇게 찾아낸 골목상권은 155곳에 이른다. 그가 말하는 골목상권이란 “사람과 돈이 모이는 브랜드”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골목뿐 아니라 경남 거제시 옥포 옥태원길, 창원시 용호동 가로수길, 전남 순천시 조곡동 역전길 등 다소 낯선 골목들도 꽤 있다. 그는 “로컬에 오프라인의 미래가 있다. 로컬이 한국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고까지 단언한다. 그의 자신만만한 전망은 그저 한두 해 연구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무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씀 없는 현장 연구가 더해진 축적의 결과다.

Q 얼마나 골목길을 누비고 다니셨나요.

틈만 나면 내려가요. 골목상권 155곳 중 한두 곳 빼고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같은 곳을 수십 번 가기도 했어요. 골목길 현상은 200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북으로 놀러 가자’라는 말이 흔해지고, 강북 상권도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데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Q 어쩌다 골목길 연구에 빠지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신성장동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주력 산업 위주의 성장동력입니다. 둘째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거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혁신창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셋째가 바로 제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로컬 생태계로 불리는 지역산업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산업만 있었어요. 유럽을 보면 다양한 지역산업이 국가 경제성장의 추동체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실제로 지역이 골목상권 중심으로 들쭉거리고 있고요.

Q 나다움을 추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밀레니얼의 출현이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했다던데요.

기성세대는 부르주아 문화예요. 산업사회의 부르주아 문화는 조직력, 성공,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모범생



을 만드는 문화죠. 소득이 낮을 때는 부르주아의 질서를 수용했지만 더 이상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후에는 자아실현 욕구가 강해져요. 밀레니얼은 일과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 안에서도 자유로운 영혼이 되려 하고, 창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취향이 분명하고 삶의 방식도 확고해요. 그런 친구들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예술가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습니

Q 로컬 크리에이터 세대인 2030세대와 자주 어울리시는데, 대화는 잘 통합니까?

밀레니얼 단어 테스트 하면 빵점 나와요(웃음). 제 역할은 양쪽을 이어주는 브리지 역할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자신들의 활동이 통상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주면서 지향점을 보여주고, 학계와 주류 사회에는 이 친구들의 역할을 알려주는 거죠.

Q 도시를 떠나 로컬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던데요.

밀어내는 요소인 푸시 팩터(push factor)와 끌어당기는 요소 풀 팩터(pull factor)가 있어요. 첫 번째 푸시 팩터는 기성세대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서울, 강남이 기성세대 문화의 상징이니 여기를 떠나 로컬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푸시 팩터는 기회의 상실입니다. 예전에 비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줄어들면서 도시로 상징되는 주류 사회에서 로컬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어요. 풀 팩터는 지역에 기회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서울서 확보한 능력을 지역에 가서 펼치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역이 과거에 비해 살기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도 있고요.

Q 로컬 콘텐츠와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어떻게 연결돼 있나요.

고리는 나다움이예요. 제 바람은 나다움이 지역다움을 만들고, 지역다움이 나라다움으로, 세계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애플을 보세요. 스티브 잡스의 나다움이 결국 세계의 표준이 됐어요.

Q 로컬 콘텐츠를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면요.

로컬의 가치와 글로벌 가치를 동시에 가져가야 해요. 로컬 대 글로벌 비중이 30대 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로컬 정체성을 뿌리에 두되, 100% 로컬을 지향하면 위험해요.

Q 왜 로컬이 오프라인의 미래인가요.

인류의 성장 과정에서 봤을 때 부르주아 문화까지는 확일적 라이프스타일이 통했지만, 저성장과 문화경제 기조로 돌아서면서 다양성의 가치를 담은 로컬 문화가 환영받아요. 로컬을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삶의 질입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삶의 질이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과거엔 로컬이 억압적이어서 익명성을 추구하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지금은 반대로요. 서울 중심 문화가 강하고 억압적이어서 오히려 로컬에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제력과 능력 대비 로컬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Q 도시건축의 역사에서 볼 때 골목상권의 부활은 긍정적인 흐름이군요. 시간의 가치와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는 양식이니까요.

우리가 취향을 다변화하지 않고는 자본주의를 구할 수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시도되는 로컬을 응원해 줘야 해요. 로컬이 명품이다, 로컬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고유의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도 한 단계 나아가려면 다양성을 지키려 노력해야 합니다. 전부 경쟁 논리, 가성비 논리, 취향의 서열화로 간다면 슈퍼스타만 살아남아요. 도시도, 예술가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되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편리성뿐 아니라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본능도 있잖아요. 로컬 상권의 부활이 인류의 행복을 위한 방향으로 맞닿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탄소 없는’ 스마트시티를 말한다

ESG 칼럼 세계는 지금 ‘탄소 없는 스마트시티’ 경쟁 중이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시티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미처 생각지 못한 탄소 없는 도시의 진짜 경쟁력을 알아봤다. 글=유길용 <일간중앙> 기자



지난 3월 21일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Pritzker prize)에 프랑스 건축가 안 라카통(Anne Lacaton)과 장 필리프 바살(Jean-Philippe Vassal)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파리 외곽 도시 몽트뢰유(Montreuil)에서 함께 활동하는 라카통과 바살은 재건축·리모델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7년 보르도의 530가구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서 입주민을 내보내지 않고 공사를 마쳐 주목 받기도 했다.

프리츠커상은 이들의 철학을 눈여겨 봤다. 바살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절대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무를 자르지 않고, 꽃을 꺾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츠커상이 세계 건축의 경향과 시대상을 투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라카통과 바살의 철학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프리츠커상 심사위원단은 “라카통과 바살이 이 시대의 심각한 기후변화와 생태학적 위기 상황에 부합해 모더니즘의 유산을 새롭게 하는 건축적 접근법을 정의했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 대응 위해 30조원 규모 ‘K-그린뉴딜’ 추진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화두다.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할 정도로 지구적 차원의 과제로 떠올랐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만큼의 온실가스(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 기업, 지자체, 정부 등 크고 작은 단위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생활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ESG 경영’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도 거시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들이다. 아쉬운 건 누구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 피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의 1인당 탄소배출량은 연간 12.89t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 세계은행이 통계 조사를 시작한 1980년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평균에 비하면 증가율은 7배에 이른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그린뉴딜’이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상용화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다. 2025년까지 투입될 정부 재정만 30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린뉴딜의 지향점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에 방점을 찍는다. ‘한국판 뉴딜’ 정부 공식 웹사이트(knewdeal.go.kr) 자료에 따르면 ▶건축물 설계와 시공 방법 혁신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을 달성 ▶생태계 회복

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등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목표는 ‘편리하고 안전하며 깨끗한 도시’로 축약된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그린뉴딜의 지향점인 셈이다.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의지는 총력전이라 할 만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smartcity.go.kr)에 등록된 정책 자료 출처를 기준으로 할 때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8개 부처와 6개 외청(外廳)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크고 작은 지역 택지개발 사업을 ‘스마트시티’로 포장해 홍보하는데 앞다퉈 나서고 있다. IT, ET(Ecototechnology)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관련 기업들도 모처럼 열린 큰 장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다.

친환경 도시 건설 위한 외국의 노력 참고해야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꿈꾸듯 지속 가능한 생태를 보장할 수 있을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등 어린 시절 과학책에서 봤을 법한 ‘미래의 도시 생활’에 운동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논의되는 스마트시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한계가 있다. 우선 앞서 언급한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이 완성품의 모습에만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까지의 과정, 즉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시를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보다 50년 앞선 스웨덴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은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을 수립해 22개 산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 그중 기후 영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건설·토목 분야의 경우 ‘2030년 탄소 배출량 50% 감축-2045년 탄소배출량 0 달성’을 실현하고자 26가지 실천 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굴착 자재 및 건축·철거 자재 재사용률을 높이고, 각 건설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시각화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원자재부터 설계·시공(방법·장비·업체 등)-완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와 요소마다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정밀하게 조사해 시각화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원자재를 우선 공급하거나,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건설 장비(바이오 연료·전기 에너지 사용 장비)를 우선 사용

하게끔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저탄소 공법이 적용되도록 유도한다.

기존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리도 꼼꼼하다. 주한 스웨덴무역대표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도시 내 각 구조물(건물·도로·교량·공원 등)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뒤 이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옥상녹화, 차광필름 등의 에너지 효율화, 빗물 활용 등 곧바로 적용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 단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낮춰가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펴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도시 재개발을 착수한 스웨덴 예테보리는 자동차 회사와 협력해 시공 과정에 투입되는 트럭과 버스를 디젤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혁신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대기 질 개선과 소음 감소 등 보다 환경 친화적인 건설에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스마트시티 ‘마스다르’는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저탄소 시멘트와 재활용 알루미늄 등 친환경 재료를 최대한 사용했다. 여기에 대형 태양열·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등 거의 완전에 가까운 탄소중립을 실현한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관-산’ 사회적 연대는 탄소중립의 ‘세 바퀴’

애석하게도 한국은 외국의 이런 노력에 비하면 ‘몽상’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탄소배출량을 평가할 국가 지표도 없는 상태. 서울·인천·경기 지역 2600만 명이 사용하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한(2025년)이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 현재 기술로 약 10%에 불과한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을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 없는 노릇이다.

2022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다. 새로운 중앙·지방정부가 동시에 출범하는 정치적 변화를 고려할 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도 같은 탄소중립 정책은 당분간 동력을 잃은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탄소중립은 정부·지자체와 시민, 기업이 협력하는 사회적 연대에 의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은 이미 외국의 사례와 수많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상식이다. 정책이 동력을 잃어갈 때 민간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ESG 경영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10월 지속가능경영 협의체를 발족해 사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친환경 관리를 시작한 것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 이리라 기대한다.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인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한국위원회가 발표한 ‘CDP Korea 명예의 전당’에 현대건설이 3년 연속(2018~2020년) 입성하는 쾌거를 이룬 것은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다.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 라카통과 바살이 리모델링한 파리의 ‘팔레 드 도쿄’. 1937년에 지어진 건물 골조를 유지한 채 최소한의 재료를 더해 내부 공간을 확장했다. 출처: 프리츠커상 공식 웹사이트(pritzkerprize.com) 2 설계 단계에서부터 탄소제로 도시를 구현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스마트시티 ‘마스다르’ 출처: 마스다르시티 공식 웹사이트(masdarcity.ae) 3 스웨덴은 22개 산업 부문에서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사진은 스웨덴 토목·건설 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홍보 영상의 한 장면. 출처: 스웨덴 탄소중립 로드맵 웹사이트(knewdeal.go.kr)

뜨거운 여름으로부터 피부를 지키는 방법

건강 칼럼 한낮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나들고 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강하게 내리쬐는 자외선, 높은 기온과 습도로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는 만큼 피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여름이 니 오래 그러려니 하는 방심은 금물! 이번 여름엔 건강한 피부를 위해 작은 노력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글=신호정 뷰티 칼럼니스트

에어컨 바람 쐬 때, 이젠 꼭 기억하세요

끈적이는 땀과 붉게 달아오른 피부 열감을 한 방에 날려 버리기에 에어컨만 한 게 없다. 이렇다 보니 한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피부 열감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므로 열을 빨리 식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과도한 냉방은 열감뿐 아니라 습도까지 빼앗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장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면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해 건조해지는데, 이때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촉진된다.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는 피부 보습에 소홀하게 되는데 장시간 에어컨이 가동되는 공간에 머무른다면 특히 수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에어컨을 가동하다 보면 환기를 놓치기 쉬운데, 그럴수록 실내는 더욱 건조해지므로 틈틈이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 가슴기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말자. 실내에서 보습제를 덧발라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두피 관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별을 그대로 맞는 두피와 모발 보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햇볕에 장시간 노출된 모발은 약해지고 건조해져서 푸석푸석해진다. 탄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모발 표피가 벗겨져 윤기도 잃게 된다. 또한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여름철엔 두피 모공이 막히기 쉬운데, 이 때문에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뾰루지가 잘 생긴다. 모낭염이 생기고 비듬균도 많아져 가렵기도 하고 자칫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름철 청결 유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두피를 청결하게 한 후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 머리를 다 말리지 않고 외출하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모발이 젖은 상태에는 표피층이 열려 있어 자외선이나 외부 환경에서 손상되기 쉬우므로 충분히 말려야 한다. 그리고 자외선이 강한 날에는 꼭 모자나 양산을 쓰고 야외 활동 시간도 줄이는 게 좋다. 여름철에는 되도록 염색, 파마 등은 자제하고 헤어 팩이나 트리트먼트로 모발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면 도움이 된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외출 15~30분 전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헤어 에센스를 사용하면 자외선으로 인한 모발 손상을 줄일 수 있다.



매끈한 피부를 위한 선택, 제모할 때 주의할 점

‘제모’란 머리카락을 제외하고 다리·겨드랑이 등에 난 털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미용뿐 아니라 위생을 위해서 제모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요즘처럼 민소매와 짧은 바지를 입는 여름이 되면 제모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제모의 종류는 면도·왁스·제모크림·레이저 제모 등이 있으며, 그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면도할 경우 풍부한 거품을 이용해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모크림을 사용할 땐 제모할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털과 모공이 부드러워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왁스할 때는 털이 나는 방향으로 왁스를 바른 후 곧바로 털이 난 반대 방향으로 제발리 떼어내는 게 좋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피부의 일부가 깎여 나갈 수 있는 만큼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제모 후 피부 보습제로 유·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등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과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알아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 일광 화상, 색소 침착 등이 생긴다.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A, B, C로 나뉘는데, 이 중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미, 잔주름 등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A와 일광 화상과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B다. 자외선 A는 구름, 창문, 커튼을 다 통과하고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15~30분 전에 바르고 자외선이 강한 날이나 야외 활동 중이라면 2시간마다 덧바르는 게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차단 방식에 따라 피부에 닿은 자외선을 그대로 반사하는 물리적 차단제(무기자차)와 자외선을 흡수한 뒤 열로 전환해 발산시키는 화학적 차단제(유기자차)가 있다. 물리적 차단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징크옥사이드·티타늄디옥사이드다. 바르면 피부가 하얗게 보이는 백탁현상이 있지만 화학적 차단제에 비해 순한 편이다. 그러나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화학적 차단제는 백탁현상이 없고 발림성이 좋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아보벤존·옥타녹세이트 등이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피부 테스트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외선을 차단하면 비타민D 부족으로 만성피로와 우울증, 골다공증, 수면장애, 감기 등의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비타민D 합성을 위해서는 자외선 B를 적당하게 쬐어야 한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고, 팔다리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가볍게 산책하거나 창가에 앉아 햇빛을 쬐면 좋다. 외출이 없는 편이라면 일주일에 최소 2~3일, 10~30분 정도는 의도적으로 햇빛을 쬐자.

노출의 계절, 등 여드름 예방하기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팔, 다리, 목 뒤, 등 피부까지 신경이 쓰인다. 특히 등 여드름, 일명 ‘등드름’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등은 다른 부위에 비해 피부가 두꺼워 모공이 막히는 정도가 심하다. 노폐물 분비가 많은 여름에는 더욱이 과도한 피지 생성, 모낭의 과각화증, 염증 반응으로 여드름이 잘 생긴다. 게다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초기 발견이나 관리가 쉽지 않다.

등은 모공이 넓게 분포돼 있고 피지선이 발달돼 있는 반면 피부는 두꺼워 각질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등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편이라면, 일주일에 2~3회 스크럽 제품으로 각질을 제거하자. 시중에 나온 스크럽 제품을 사용해도 좋고 천연 분말을 이용해서 비누 거품과 함께 부드럽게 마사지해도 좋다.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청결하고 쾌적한 피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다. 등 여드름 관리도 다를 게 없다. 여름에는 피지와 땀 분비가 많아지므로 피부에 직접 닿는 옷도 신경 쓰자. 땀 흡수와 통풍이 잘 되는 소재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여름철 피부 관리 TIP

- 1 피부 열감 내리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 각질 생성, 수분 배출 등 피부 균형이 깨질 뿐 아니라 콜라겐을 파괴해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된다. 일주일에 1~2회 쿨링팩을 해주고, 야외 활동을 한 날이라면 쿨링 효과가 있는 화장품이나 찬 성질의 오이, 감자를 이용한 천연팩으로 피부를 진정시키면 좋다.
- 2 물 많이 마시기: 여름에는 대부분 피부가 건조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피부 수분이 증발해 건조한 상태로 방치되기 쉽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제철 과일을 먹으며 틈틈이 피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말자.
- 3 피부 손상 피하기: 야외 활동 시 외상이나 벌레에 물려 피부가 손상되기 쉽다. 모기에 물려 심하게 긁다 보면 2차 세균 감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야외 활동 시에는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거나 민소매 옷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방구석 현대건설 세계 역작 여행'

포토이벤트 홍보실에서 창립 74주년을 맞아 '현대건설 Passport 리플릿'을 사보 신문과 함께 배포했다. 현대건설의 역작을 아기자기한 일러스트로 표현해 임직원의 많은 호응을 얻은 리플릿. 오토웨이 게시판을 통해 진행한 임직원 참여 이벤트는 '현건과 떠나는 방구석 세계여행'을 콘셉트로 기획됐다. 집 안에서 아이와 함께 꿈을 키우는 지도로, 벽면 포스터와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리플릿 인종샷 중 베스트 사진을 소개한다. 글·정리=강은비

가슴 설레는 세계여행을 현대건설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AWP운영기술팀에서 근무 중인 장재일 책임입니다. 아들에게 현대건설 Passport 리플릿을 주며 어디로 여행 가고 싶는지 물어봤는데, 가족이 함께 여행 갔던 태국을 꼭 집어서 말하며, 아빠 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 지은 고속도로가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아는 아들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아빠가 오랫동안 있었던 중동의 여러 나라에도 꼭 가보고 싶다고 하는 저의 아들! 그중에서도 두바이에 가면 대관람차를 꼭 타보고 싶다고 하는데, 저보다 현대건설 역작을 더 잘 아는 아들의 모습에 저 역시 덩달아 설레어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연서는 아빠랑 다~가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산기획팀 윤도령 책임입니다. 자칭 딸 바보인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딸 연서와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평소 지도를 좋아하는 연서를 위해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히 인도네시아 현장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어, 그 나라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주곤 합니다. 연서의 눈빛이 반짝일 때를 놓치지 않고, 현대건설 Passport 리플릿을 펼쳐서 어디 가고 싶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랑 다 가보고 싶으면서 지도를 품에 안더라고요(웃음)! 너무 귀여운 우리 딸과 함께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현대건설 리플릿으로 역작 부루마블(?) 하기!

안녕하십니까. KOTITI 시험연구원 과천 신사옥 현장에서 근무 중인 품질관리팀 박준수 팀장입니다. 저의 집 아이들은 리플릿을 펼쳐놓고 부루마블처럼 게임을 하더라고요! 서로 어디로 갈지 주사위를 던지면서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게임하며 중간중간 현장에 대해 물어볼 때, 리플릿 앞면의 특징을 보고 핵심만 설명해 줄 수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게임을 지켜보며 저 역시 그동안 우리 회사 어느 국가에 진출해 어떤 역작을 지었는지 다시 되새겨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남극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아빠 회사에서 지었다고요? 대박!

안녕하십니까. 건축국내건축팀에 근무 중인 장준호 책임입니다. 평상시에 아이들에게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고 싶었는데, 현대건설 리플릿으로 역작들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리플릿을 보여주며 아들, 딸에게 각자 가보고 싶은 곳을 골라보라고 했더니, 공감이 고만하던 딸 하경이는 카타르국립 박물관을 선택하더라고요. 꽃처럼 너무 예쁘다면서요. 아들 하성이는 남극장보고과학기지를 선택했는데, 남극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냐면서 신기해하기에 아빠가 다니는 현대건설에서 지었다고 말해주니, 두 엄지를 척 내밀더라고요. 무척 부듯했습니다!



아빠! 달나라에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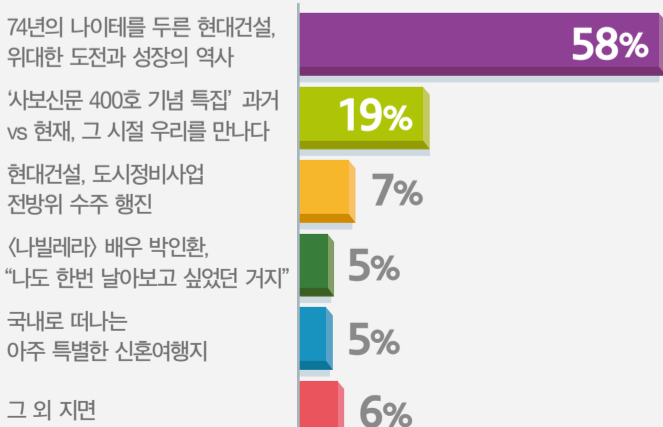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기자재품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원 책임입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두 딸이 있는데요. 직접 사진을 소개해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는 김유진이고요, 저는 동생 김서진입니다! 언니가 들고 있는 사진은 언니가 엄마 배속에 있었을 때 쿼퀘이트에서 찍은 사진이래요(초음파 사진). 저는 나중에 아빠가 달나라에 일하러 가게 되면 함께 달나라로 가보고 싶어요. 달나라에 가게 되면 토끼도 만나고 올 거예요. 같이 사진도 찍고, 별나라로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신나요!"



독자 참여 코너

Stay with HYUNDAI E&C TODAY!

Q 400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현대건설 대표 소통 채널 <HYUNDAI E&C TODAY!> 사보신문 독자들은 지난 호의 어떤 기사를 가장 관심 있게 읽었을까요?

Q 다음 호에 읽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 #현대건설 역작 소개
- #반려동물 관련
- #임직원 스트레스 관리법
- #색다른 국내 여행지
- #휴가 때 보면 좋을 책·영화 소개



QR코드를 스캔하면 사보신문이 쏩니다!



독자 의견을 QR코드를 통해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참여 방법 ① QR코드 접속 ② 질문에 응답하기 ③ 선물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입력
- 참여 기간 ~7월 16일(금)까지(※당첨자 개별 연락)
- 당첨 경품 소정의 상품(5명)

※지난호 정답
1.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2. 13개(14개째 다리 공사 중)

보다 짜릿하게 여름을 즐기는 시간

이색 레저 스포츠 성큼 다가온 여름을 체감하듯 낮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타는 듯한 태양을 이겨내고 땀 흘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소개한다.

글=강은비 / 사진=게티이미지, 중앙일보S

하늘과 하나 되는 기분, 패러글라이딩

답답한 마음까지 시원하게 뺏 뚫리는 스포츠가 있다. 바로 패러글라이딩이다. 광활하게 펼쳐진 푸른 하늘과 녹음이 짙은 숲 위를 날고 있으면 한 마리의 새가 된 것처럼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체험도 가능하지만, 교육을 받아 면허 자격을 취득하면 더욱 높고 길게 즐길 수 있다. 초보인 경우 강사와 함께 뛰어내리며 고도 600~800m 사이를 10분 정도 비행한다. 중급자가 되면 1000m의 고도까지 혼자 올라 하루 종일 비행하며 다양한 기술까지 선보일 수 있다. 방향을 바꿔 무중력을 즐기는 '윈오버'와 1초에 10m씩 급하강하는 '스파이럴' 등 롤러코스터보다 더 아찔한 스릴이 가득하다.

[QSEARCH](#) Frip에서 '패러글라이딩' 검색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바람, 플라이스테이션

공포와 스릴은 한 곳 차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이 무서워 시도하지 못했다면, 실내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해 보자. 국내 최초로 스카이다이빙 시설이 갖춰진 용인 플라이스테이션은, 20m 높이의 윈드터널에서 최대 시속 360km 바람에 몸을 맡겨 하늘로 떠오르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 플라이 슈트와 안전모, 고글, 이어플러그를 착용하고 기본 자세와 수신호까지 익혔다면 실내 다이빙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 윈드터널 안에서 바람을 타고 자세 교정에 익숙해지면 전문 코치와 함께 하이플라이까지 시도할 수 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을 경험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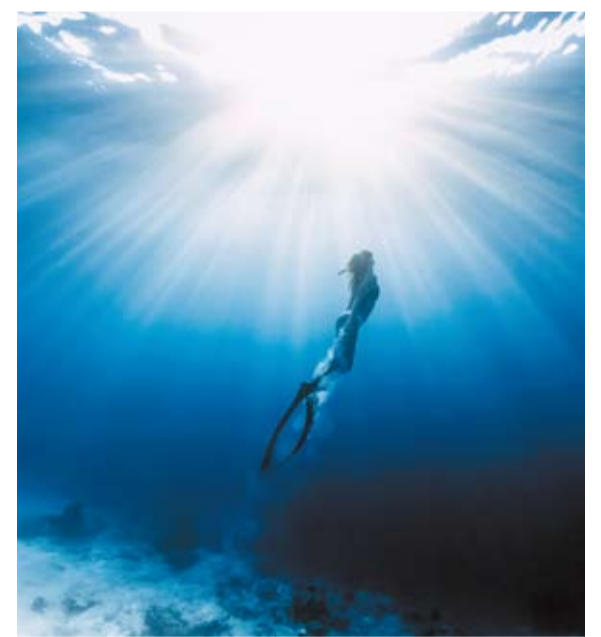
[QSEARCH](#)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플라이스테이션코리아' 검색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없는 카이트서핑

카이트서핑은 Kite(연)과 Surfing(서핑)을 합친 용어로,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을 조합한 레포츠다. '카이트보딩'이라고도 불리는 데 바람의 힘을 이용해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며 스피드를 즐기는 수상 스포츠다. 바람만 있다면 바다와 호수, 강 위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다. 다만 패러글라이딩과 서핑의 기초를 배워야 해서 조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초보자를 벗고 어느 정도 편안하게 연 조정이 숙련되면 스스로 방향을 정해 속도를 낼 수 있고, 고공 점프는 물론 하늘 위에서 다양한 기술까지 뽐낼 수 있다. 카이트서핑은 한강, 평택호, 강릉, 제주 등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다.

[QSEARCH](#) Frip에서 '카이트서핑' 검색



또 다른 세계 물속으로, 프리다이빙

지금껏 물 바깥에서만 레포츠를 즐겼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해 볼 시간. 공기통 없이 자신의 호흡을 다스려 물속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프리다이빙은 최근 인기가 급증한 레포츠다. 스쿠버다이빙과는 다르게 최소한의 장비만으로도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닐 수 있고, 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생겨 진입장벽도 낮아졌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서는 무호흡으로 산소 소모를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입수 동작 및 이퀄라이징, 호흡 충돌 등을 다스리는 연습과 교육이 필수! 자격증을 취득해 자유롭게 다이빙할 수 있지만 자신과 잘 맞을지 고민이라면 체험을 추천한다. 집 근처 잠수풀이 있는 수영장이나 안전장치가 설치된 바다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 볼 수 있다.

[QSEARCH](#) Frip에서 '프리다이빙' 검색

물위에서 하는 요가, SUP Yoga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가는 SUP(Stand Up Paddle)와 요가가 만났다. '서프요가' 혹은 '플로팅요가'라 불리는 이 레포츠는 패들보드 위에서 요가를 하는 운동이다. 물위에 떠 있는 보드 위에서 요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지 않던 근육과 복부에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 매트 요가보다 2~3배 정도 운동 효과가 크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물속으로 빠지기 십상이라 집중력까지 필요하다.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서프요가는 강, 바다, 수영장 등 물위라면 어디에서든 운동이 가능해 아름다운 경치와 하나 되어 수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여름에는 색다른 요가에 도전해 보자.

[QSEARCH](#) Frip에서 'Sup 요가' 검색

